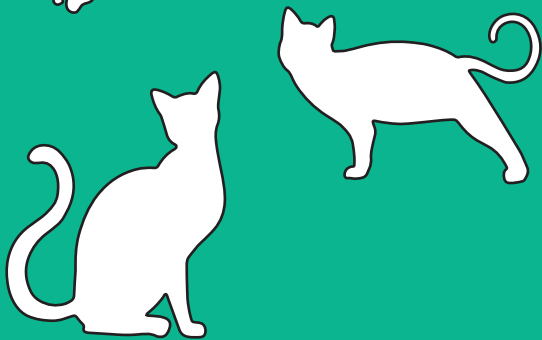


재개발지역의
길고양이 보호를 위해서는
케어테이커 간 상호소통 및
협조가 중요하며,
유동적인 재개발 상황을 고려하여
케어테이커는 꾸준히 지자체, 조합과
근밀히 소통하도록 합니다.



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매뉴얼

길고양이 보호 방법



케어테이커

1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서식현황 파악

- 길고양이 개체 수, 밥자리 개수 파악
- 케어테이커들이 상호 긴밀히 소통하여 방법 모색



케어테이커

2 밥자리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예정지 정하기

- 재개발지역 주변에 밥자리 이동을 통한 이주 지역 설정
- 주택가가 가장 적합
- 경우에 따라 차량 이동량이 적은 도로, 육교, 지하도 등도 가능



케어테이커

3 길고양이 이주 일정 수립

- 지자체, 조합과는 꾸준히 소통하며 재개발 상황 체크
- 재개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지자체에 예산확보 및 집중 TNR에 대해 의견 개진,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



케어테이커

4 재개발지역+이주 예정지역 길고양이 TNR 상시진행

- 재개발 지역과 길고양이 이주 예정지역 집중TNR 진행
- 길고양이 이주 예정지역 TNR이 최우선 시행



지자체



밥자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



지자체



케어테이커

- 차선책으로 야외에 임시 계류장 설치를 통해 길고양이를 이주시킬 알맞은 곳 선정하기
- 케어테이커, 지자체가 알맞은 지역을 적극 선정해야 함
- 야외 임시 계류장을 설치할 장소 주변에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케어테이커가 반드시 있어야 함
-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야외 임시 계류장 설치
- 임시 계류장에 길고양이들을 1개월 ~ 3개월 정도 보호하며 적응시킨 후, 서서히 계류장 문을 열어 주변에 방사시키기



케어테이커

5 밥자리 이동을 통한 길고양이 이주 진행

-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인내와 노력이 필요
- 밥자리를 이주 예정지역으로 점차 이동시키며 고양이에게 안전한 밥자리 인식시켜주기
- 고양이가 밥을 먹은 후, 빈 집에 쉬는 것은 당연한 현상
- 소모되는 밥의 양으로 밥자리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
- 재개발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과 지자체에 생태통로 조성 도움 요청



케어테이커

6 밥자리 이동 완료 및 이주 길고양이 상시 모니터링

- 건물 철거 전, 밥자리 이동 완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
- 부분 철거하더라도 밥자리 이동은 꾸준히 진행
- 이주 지역 길고양이 꾸준한 돌봄 및 모니터링 상시 진행

